

송영길 총선 불출마·종로 無공천...민주, 인적쇄신 초강수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배수진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 설 연휴 앞두고 민심모으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안성·청주 등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과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3월 대선

판세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설 연휴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이 틈에 ‘설날 민심’을 겨냥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은 최근 제기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유퇴론’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당내 인적쇄신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인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 위해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이 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5선의 의원인 송 대표는 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광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정치개혁 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 지역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2030세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청년 당사자들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기초 의원의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6세대 만행’ 적인 송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함에 따라 다른 대선 중진 의원들의 2선 퇴진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의 결단을 다른 86 의원들이 팔짱만 끼고 보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대선을 전후해 어떤 식으로든 연쇄적 파급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최근 ‘기득권 내려놓기’를 앞세운 일련의 인적쇄신 흐름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몰이용 인위적 개편에 치중하면서 되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도 감지된다. 특히 ‘4선 연임 금지’는 의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제 제도화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놓고도 백의종군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 대표가 광역시장까지 지난 5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인적쇄신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하남시 신장시장을 방문,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광주서 “호남이 정권재창출 길 열어달라” 호소

27일 이낙연과 광주·전남 방문 광주 군공항 2년내 이전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는 27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충장로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이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집권시 광주 군공항의 2년 이내 이전 등 지역 민심에 닿는 굵직한 공약 발표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아직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이 후보가 호남 민심을 향해 정권재창출의 절박성과 절실성을 토로할 것”이라며 “특히, 이 전 대표가 이날 일정을 함께 함에 따라 호남에서 이재명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 북동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기본소득 지급, 통장·이장 수당 인상, 농림수산물예산을 5%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포천을 비롯해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 등 선거운동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대대적으로 제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눈물도 보였던 이 후보는 이날도 반성과 쇄신의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가평철길공원 연설 도중 송영길 당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이 국민 뜻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이 실망시켜 드렸으나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남 눈물을 흘린 것과 관련 “어제 울었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제 더 이상 울거나 그러지 않겠다. 오로지 국민께서 우시지 않도록, 국민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떠나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저희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난 21일부터 매일 수도권 5~6개의 시군을 도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면서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 대결집 통해 이재명 바람 일으킨다

민주 선대위 ‘정치혁신특보단’ 26일 DJ센터서 ‘동행 선언식’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광주·전남 대결집’이 이뤄진다.

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보단(단장 박상철 경기대교수)’은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이재명과 동행 선언식’을 갖는다.

광주·전남지역 재야, 시민사회와 종교, 학계, 지역 정치권이 대거 참여, 호남 대결집을 통해 ‘이재명 바람’을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에는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 친 이낙연’ 계도 포함한 30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전남 재야 원로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후보를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로 인정하고 4기 민주정부창출에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광주·전남 대결집이 범 민주개혁세력 결집과 호남 표심 결집에 청신호가 켜지고 ‘이재명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정치혁신특보단 박상철 특보단장은 “이재명과 동행선언에 광주·전남 지역의 재야 원로들과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참하는 것은 정제돼 있는 호남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안철수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집권하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민영접과 주요 정치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청와대에 갈려 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러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다”면서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서로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패가 되는 적폐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딱 달린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